

# 담양군, '향촌복지'로 행복한 노후 만든다

고향 떠나지 않고 지역서 생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만족도 높아 고향사랑 기금 사업 병원 동행 퇴원환자 돌봄사업 추진 등 다양

담양군이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2023~2026)을 수립해 체계적인 향촌복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로당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4년간 19개 사업에 6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요양시설과 병원 입원 대상, 장기 요양 인원을 2027년 244명까지 5~7% 줄이고,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도 570만 원에서 470만 원까지 줄여 군민의 부담을 낮춘다는 포부다.

지난해 말 군은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돌봄 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약 3개월간 12개 읍·면 4525명을 대상으로 향촌돌봄 전수조사

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으며, 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행복동행팀 서비스'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랑을 전해준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금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동행과 퇴원환자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과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 지표 측정과 상담,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우리마을 주치의'는 523회, 1400명의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신설하고, 돌봄 로봇을 이용한 안부 살피기, 요양시설 기능보강과 입소비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담양에 맞는 특별한 복지 정책은 큰 주목을 받으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노



담양군이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향촌돌봄 행사에 참석한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

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에 선정, 담양형 향촌돌봄 시스템 구축에 탄력을 얻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어르신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노인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군은 약 8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 10일이던 공익형 일자리 활동 일수를 12일로 확대하

고, 참여 인원도 1516명에서 1621명으로 늘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지원만을 하기보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참여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 '능주 들소리' 민속공연 능주 들판·역사관서 풍년기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능주 들소리보존회원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주면 소재지 일원과 능주 들판·능주 역사관에서 대동한 마당으로 풍년 기원 '능주 들소리' 민속 공연을 펼쳤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김석봉 화순군의회 부의장은 "지금까지 '능주 들소리'의 보존·전승에 힘써 주신 보존회 회원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직접 행사를 준비한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군 의회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우리의 무형 문화유산이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능주면 마을 깃발을 앞세운 능주 농약대가 능주면 복지회관을 출발해 면 소재지 길놀이에서 나서자, 거리의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환호를 받았다.

모내기 공연은 능주농협 로컬푸드 방면 논에서 논 고사 후, 주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면서 흥겨운 모내기 상사 소리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이날은 인근 춘양 우봉들소리 보존회와 나주 동강 봉추 들노래보존회가 참가하여 춘양과 나주지역의 들노래를 찬조 공연하면서, 영산강 유역 평야 지대의 들소리를 매개로 보존회끼리 서로 연대를 꾀하는 의미 깊은 공연이었다.

한편 능주 들소리는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65호로 지정되어 화순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다.

능주 들소리는 2022년 전남 민속예술 축제에서 화순군 대표로 참가하여 대상을 받았고, 2024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권을 획득하여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화순=김선중 기자

## 여름철 식중독 예방 당부 영광군,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식중독 예방 소통전담관리원을 통해 식중독 예방 홍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통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여름철을 맞아 달걀 취급이 많은 김밥, 밀면, 냉면 등 음식점과 배달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재료 취급요령과 개인위생 수칙 등을 지도 및 홍보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으로 음식조리 및 보관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특히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요령만 잘 실천해도 식중독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곡성에서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28개팀 900여명이 참가했다. 곡성군 제공

## 제8회 곡성군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 성료

곡성군이 '제8회 곡성군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간 관내 축구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체육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축구장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참가 선수단과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며 준비에 착수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8개 대학 동아리 팀, 약 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우천 속에서도 선수들은 팀워크를 발휘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녹색 잔디 위에서 몸을 부딪히고 땀을 흘리며 함께 웃는 선수들의 모습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는 대회 내내 뜨거운 호응으로 이어졌다.

치열한 경쟁 끝에 대회 결과, 경남대가 1위, 국민대가 2위를 차지했으며, 한체대와 목원대가 공동 3위에 올랐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지역 홍보와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확충과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곡성군, 심청상품권 '착' 통합관리 운영

8월1일부터... 편의성 향상

곡성군은 8월1일부터 모바일상품권(카드·QR)을 조폐공사 착(chak)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카드형 곡성심청상품권을 조폐공사 착(chak)에서 사용하도록 출시했으나 모바일상품권 QR은 제로페이 사용했다.

이번에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사용하던 제로페이 QR은 '24년 8월1일부터 판매 중단하며 조폐공사 착(chak) 앱을 통해 곡성심청상품권 카드·QR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로페이 QR 모바일상품권은 8월1일부터 구매가 불가하며 이전에 구매했던 제로페이 상품권 결제는 12월15일까지 가능하다.

지류(종이)상품권은 변동없이 기존대로 농·축협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면 된

다. 곡성심청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지류·카드 30만원, 제로페이 40만원 구매했으나 통합관리 운영하면서 지류 한도 20만원, 모바일(카드·QR) 50만원으로 구매 한도가 변경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이 조폐공사 착(chak)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앱을 통해 한 번에 구매가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관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가족쿠킹클래스' 참가자 모집 화순군, 선착순 12가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화순지역 대표 특산물 파프리카, 복숭아를 활용한 가족요리체험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가족 12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20일 화순팜, 도곡, 능주 복숭아 농가와 연계해 '파프리카잡채꽃빵'과 디저트 '복숭아파르페'를 가족이 함께 요리하며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9세~24세 청소년을 포함한 12가족으로 한 가족당 최소 3인~최대 5인이 신청할 수 있다. 오전 10시, 오후 1시로 시간별 6가족씩 총 12가족이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가족이 요리체험을 통해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은 11~13일까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hwasunyouth.kr>)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고 체험 확정 시 문자가 안내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